

言語와 社會

— 새로운 言語理論의 방향 —

黃 迪 倫

1. 언어학의 발전 과정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의 방법과 주제(subject matter)에 관한 것이다. 언어학의 방법론에서도 과학성이라는 것이 중요시되는데 과학에서는 주제가 방법을 결정하며 방법은 二次的인 문제로 보아 옳을 것이다.¹ 그렇다면 방법론적인 문제가 우선되어 언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순수언어학은² (그것이 곧 ‘언어학’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한) 재평가되어야 하며 그 재평가는 언어학이 다루어야 할 주제의 재검토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학의 연구 대상에 관한 논란은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회행위이며 문화의 일부라고 보느냐 아니면 自律的體系(autonomous system)로 보느냐로 집약될 수가 있다. 언어는 一次的으로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媒體이며 참된 언어현상은 사회적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찾아야하므로 언어학 연구의 주된 대상은 실제 상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living speech)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Antoine Meillet, Edward Sapir, B. Malinowski 등에 의해 피력되었고 J.R. Firth, C.A. Ferguson 등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言語能力(competence)과 言語遂行(performance)을 구분하여 ‘使用’이라는 맥락에서 유리시킨 이른바 自律的 體系(autonomous system)로서의 언어구조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Chomskyan Linguistics가 대두하여 언어학계를 지배하게 되자 그들로 밀려났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속의 언어’라는 본질적인 사실이 방법론적인 결정 때문에 언어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주장은 다시 고개를 들어 1963년과 1964년을 기점으로³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이란 것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가고 있다.

2. ‘사회속의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 그 주제와 내용은 다양하고 방대해서⁴ 사

¹ “The most convincing developments in linguistics (as in other sciences) have usually been accompanied by re-evaluations not so much of method as of subject matter. Transformative-generative linguistics have persuasively argued that scientific method is more properly the methods of sciences: that is to say, each science develops a large part of its method out of its subject matter; method is thus ultimately secondary.” (Pride 1971:2-3).

² “...much that is involved in language behavior is excluded by methodological decisions from the linguist’s model of the language-system and is thereby defined as non-linguistic.” (Lyons 1977: 573).

³ 1963년에 미국의 사회과학연구협회(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의 사회언어학 분과(Committee on Sociolinguistics)가 구성되고 1964년엔 역시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와 Indiana University에서 사회언어학을 주제로 한 두개의 큰 모임이 열렸다.

⁴ Pride (1971:1)는 Hymes (1964)에서 언급된 책이나 논문 등이 2,000여 개에 달하며 미국의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에서 배부된 Selected Titles in Sociolinguistics에는 Hymes 것과 중복 안되는 것

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이란 말도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초점을 언어를 통한 사회·문화 현상의 분석과 기술에 둘 수도 있고(ethnomethodology 등) 사회문제와 언어문제 양쪽에 둘 수도 있으며(discourse analysis, ethnography of speaking, anthropological linguistics,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social psychology of language 등) 초점을 언어학에 두고 궁극적 목적을 언어학 이론의 발전과 완성이라는 데에 둘 수도 있다. Hymes(1973)도 사회언어학을 그 주된 목적 여하에 따라 사회학적인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the social as well as linguistic과 현행 순수언어학의 기본 테두리 안에서 사회와 관련된 언어현상 기술을 부가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 the socially realistic linguistics, 언어기술을 처음부터 사회적 기능이란 점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모형의 언어학 즉 the socially constituted linguistics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어학으로서의 사회언어학 즉 앞서 말한 sociolinguistics proper와 Hymes의 socially realistic 내지는 constituted linguistics란 입장에서 몇가지 얘기해 보기로 한다.

3.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의 언어를 연구 기술하는 사회언어학이, 언어현상이란 사회적 요소와 완전히 분리 시킬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언어학의 주제(subject matter)는 재정의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방법과 이론적 모형 자체도 재검토해야 되게 된다.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완전히 유리시킨 언어일 수 없음을 다음 몇가지 예에서 입증될 수 있으리라 본다.

3.1. 우선 의미론(semantics)적인 면에서 볼 때 그 기술이 가장 용이하리라 생각되는 낱말의 의미 기술 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 이른바 言語相對性(linguistic relativity)의 문제인데 佛語의 port가 나타 내는 意味領域(semantic area)이 영어에서는 door와 gate로 兩分되며 반대로 영어의 river에 해당되는 것이 불어에서는 rivier와 fleuv로 갈라지고 영어의 eat에 해당 하는 것이 獨語에서는 essen과 fressen으로 갈라지며 영어의 go가 나타내는 의미 영역이 독어에서는 gehen, laufen, fahren으로 三分된다든가 영어의 uncle이 우리 말에서는 ‘아저씨’, ‘삼촌’,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 ‘이모부’, ‘고모부’ 등으로 세분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낱말의 의미를 분석이 불가능한 총체(unanalysed whole)로 보지 않고 意味成分(semantic components)의 묶음으로 보아 eat에 대한 essen과 fressen의 문제를 [+eat, +human], [+eat, +animal] 등으로 기술하면 언어 사이의 차이는 많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나(이것이 微視言語學的意味論(microlinguistic semantic theory)의 기반을 이루어 왔다) 언어에 따라 이들 意味成分의 배합법에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意味成分 자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들 차이는 그 언어가 쓰이는 言語社會(speech community)의 사회·문화적 요소와 직결되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Hudson 1980: 88-90).

意味成分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예로서 Lounsbury(in Hudson 1980)는 미국 오클라호마 지역의 썬노올(Seminole) 인디언族의 親族을 呼稱하는 말에는 X라는 말 하나가 다음 모 두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 father

이 700여개가 들어 있고 Weinreich(1953)에는 다시 위 둘과 별로 중복되지 않는 것이 658개가 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ii) father's brother
- iii) father's sister's son
- iv) father's mother's sister's son
- v) father's sister's daughter's daughter's son
- vi) father's father's brother's son
- vii) father's father's sister's son's son

위의 것은 우리말이나 영어와 대비해 볼때 i)의 뜻인 경우 문제가 없으나 ii)이하는 문제가 있다. ii)는 우리말의 ‘아저씨’나 영어의 ‘uncle’과 같은 뜻인 듯하나 어머니 쪽의 남자 형제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꼭 같지가 않다. iii)은 ‘사촌’과 ‘cousin’에 해당하는 듯하나 어머니 쪽이 제거되어 있고 아버지 쪽도 아버지의 남자 형제 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v)이하에 해당하는 말은 영어에는 없으며 iv)는 우리말의 ‘육촌 형/동생’ v)는 ‘조카’ vi)은 ‘아저씨’ vii)은 ‘육촌 형제’로 나타낼 수 있으나 역시 그 意味領域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 : 우리말의 ‘육촌형제’는 iv)나 vii)와의 훨씬 다양한 친족 관계를 포괄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Lounsbury는 意味의 ‘原形’(prototype)과 ‘派生規則’(rules of derivation)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言語間에 普遍的인 意味記述을 試圖하는데, 위의 경우 ‘X’의 原形意味는 father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派生規則을 적용하면 위 i)~vii)이 모두 해결될 수가 있다.

Rules of Derivation

- A. a man's sister is equivalent to his mother;
- B. siblings (i.e. brothers or sisters) of the same sex are equivalent to each other;
- C. half-siblings are equivalent to full-siblings.

예로서 가장 복잡한 vii)을 얻기 위해서는 原形 ‘father’에 규칙 B를 적용하면 father's brother를 얻으며 여기에 C를 적용하면 father's father's son, 여기에 B를 적용하면 father's father's brother's son, 여기에 C를 적용하면 father's father's mother's son's son, 여기에 A를 적용 하면 vii)인 father's father's sister's son's son이 나오게 된다(Hudson 1980:89-90).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비록 言語間에 普遍的인 原形意味들을 설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派生規則에는 언어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며(위 예에서의 인디언말과, 우리말과, 영어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차이는 그 언어들이 쓰이는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소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普遍性 있는 原形意味의 설정 자체도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예로서 인류학자들이 ‘moiety’(‘半’이란 뜻의 불어 *moitié*에서)란 개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 종족을 둘로 갈라 생각하게 하는 단위로서(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Njamal 족의 결혼 풍습에서 따지는) 한 개인의 moiety는 항상 그의 아버지 것과 같으나 어머니 것과는 다르다. 왜냐 하면 이들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moiety에 속해야 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다(Hudson 1980:90-91). 결국 ‘moiety’와 같은 말은 언어간에 보편적일 수 없는 原形意味를 지닌 것이며 이런 原形意味 자체의 차이는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의 構造上的 특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예들이 말해주는 것은 상당한 보편성을 지닌 친족 체계를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

기술에서도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도의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 표현의 의미 해석 내지는 기술에서 사회적 요소를 전혀 도의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낱말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 문장의 의미를 놓고 보더라도 그 문장의 命題的(propositional) 또는 指示的(referential) 의미를 따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장이 커뮤니케이션이란 상황 속에서 하나의 發話(utterance)로서 쓰였을 때 지니는 뜻이다. 이 때에 말하는 이가 어떤 의미로 그 문장을 썼으며 듣는 이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 이느냐의 문제는 두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 여하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꽃병에 물을 갈 때가 되었는데”라는 말을 사장이 비서에게 했다면 이는 물을 갈라는 명령의 뜻이 되지만 반대로 비서가 사장에게 했다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Lyons(1977)도 언어는 사실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기능으로 쓰이는 것인 만큼 사용맥락에서 유리된 system-sentence의 記述的意味(descriptive meaning)만을 다루는 微視言語學的意味論(microlinguistic semantics)은 하나의 부분적 이론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보다 포괄적이고 만족스러운 의미론은 언어의 사회적 의미를 도의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⁵ 결국 發話로서의 언어 표현이 전달할 수 있는 ‘의미’에는 記述的(descriptive) 意味 즉 命題的 意味와, 表現的意味(expressive meaning) 그리고 社會的 意味의 세가지가 있는데 현재의 순수언어학적인 意味論이 이중 첫번째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순전히 方法論的인 문제가 우선되어 그런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며 意味論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위 세가지 의미 모두를 포괄하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이다.

3.2. 언어학이, 使用脈絡에서 최대한도로 유리시킨 system-sentences의 記述的(命題的) 意味와 事實的情報(factual information) 전달이라는 기능만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해 認知되어 그 결과 최근에 와서 發話行爲分析(speech-act analysis)과 話用論(pragmatics)的 研究가 활기를 띠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發話行爲分析이나 話用論에서는 언어행위의 사회적인 또는 對人關係的(interpersonal)인 차원의 문제들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Robin Lakoff(1976)는 언어학 기술에서 言語外的인 要素, 특히 사회적인 요소가 무시 될 수 없는 이유로 It's cold in here. 라는 문장이 ‘문을 닫아 달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순수 통사론에선 말할 것도 없고 Grice(1975)의 對話規則(conversational maxims)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대화 참여자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설명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어떤 發話文(이 경우 ‘문을 닫아 달라’라는 뜻으로 쓰인 It's cold in here.)을 놓고 언어학자가 해야 할 일은 우선 統辭論的인 분석이고 다음으로 그 發話行爲의 意圖란 점에서

⁵ “Microlinguistic semantics, as it has been developed so far, deals primarily with descriptive meaning. Language, however, is not merely an instrument for conveying factual information; it also serves a variety of social expressive functions. Indeed, it is difficult, in the last resort, to draw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descriptive and the interpersonal functions of language. No satisfactory and comprehensive theory of semantics can afford to neglect social and expressive meaning in language; and in doing so it must draw fully upon the notion of contextual appropriateness. If this is held to fall within the scope of sociolinguistics or stylistics, then at least this part of sociolinguistics and stylistics is to be included in linguistic semantics....”(Lyons 1977:591).

분석·설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말 자체를 왜 했느냐(Why speak at all)와 왜 그런 문장으로 표현했느냐(Why phrase his utterance that way)의 두가지 문제가 있다.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시도된 것이 Grice의 이른바 對話論理規則(rules of conversational logic; conversational maxims)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Quantity:

- 1)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
- 2)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2. Quality:

- 1)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 2)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3. Relation:

Be relevant.

4. Manner:

- 1)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 2) Avoid ambiguity.
- 3) Be brief (avoid unnecessary prolixity).
- 4) Be orderly.

이는 한마디로 해서 가장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하라는 것이 된다. 그런데 ‘문을 닫아 달라’는 뜻을 지닌 표현은 1) Close the window. 2) Please close the window. 3) Can you close the window? 4) I wonder if you'd close the window. 등이 있고 5) It's cold in here. 는 적절한 상황에서만 1)~4)와 같은 뜻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어째서 話者의 意圖(communicative intent)가 분명한 1), 2)와 같은 명령문을 두고 3), 4) 나아가서는 5)를 쓰느냐 하는 것은 Grice의 對話規則으로는 설명이 안되고 ‘恭遜’(politeness)이란 개념을 도입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위의 경우 명령의 뜻이 분명한 표현을 쓰면 듣는 이는 시키는대로 하던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수 밖에 없으나 5)와 같은 표현을 쓰면 듣는 이가 이를 명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서술문으로 받아들여 ‘I'm quite comfortable.’이라는 대꾸 등으로 처리 할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어 덜 강압적인 것이 된다.⁶

명령의 뜻으로 4), 5)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일종의 “호림”(hedging)이라 볼 수 있는데 發話行爲에서 ‘호림’은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즉 Grice의 규칙 2.2)에 저촉될 때)도 쓸 수 있으나, 확신이 있더라도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종의 강요를 함축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면 은사나 선배 학자가 “Y선생, 거 X라는 게 뭐지요?” 했을 때 X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라고 하더군요(……인것 같습니다……

⁶ 표현 1)~5)를 통틀어 볼때 1)은 話者의 社會的地位가 聽者의 그것보다 위에 있을 때 적절하며 2)~4)는 둘의 地位가 동등하거나 話者가 下位일 때 적절하다. 5)의 경우는 보다 친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명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話者가 上位일 때가 훨씬 크다는 事實이 記述上的 문제로 남게 된다.

이겠지요)” 등으로 답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해달라고 명령하거나 청할 때도 그런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는 명령문 대신에 서술문을 쓰는 것도 같은 종류의 ‘흐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흐림’은 Grice의 규칙을 위배하는 것인데 話者가 그것을 쓰는 것을 ‘공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發話行爲에서 ‘공손’은 Grice의 對話規則에 優先되며 따라서 그 규칙들을 위배 할수 있다”는 上位規則으로 설명 할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공손”이란 요소의 記述에서 對話者間의 社會的地位와 紐帶관계 및 對話場面に 關連있는 社會的要素가 큰 몫을 차지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말해주는 것은 발화장면에 있는 사회적 요소들이 發話(utterance)의 궁극적 의미를 결정하는 데 큰 몫을 할 뿐 아니라 그 맥락(context)에서 적절한, 나아가서는 容認可能한 發話의 형태(form)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3.3.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회적인 요소가 무시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어 볼 수가 있다.

우선 우리말에서 代名詞化規則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 순수 통사론적인 분석으로는 그 規則의 適用條件으로서 두개의 名詞(句)가 同一 指稱的(coreferential)일 때 그 중 하나를 代名詞로 바꾼다는 이상의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 規則은 “동수야, 너는 어디로 가기로 했니?”나 “김군, 자네는 어디로 가기로 했는가?” “김과장, 당신은 어디로 가기로 했소?” 등 適格한 문장을 만들어냄과 아울러 “김국장님 당신은 어디로 가시기로 하셨습니까?” 등의 非適格文도 導出해 내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非適格文의 導出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話者의 社會的地位가 聽者의 그것보다 낮을 때는 聽者를 指稱하는 代名詞는 쓰지 못한다”는 등의 社會的要素에 關連한 制約을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의 문법에서는 인칭대명사로 너, 자네, 당신 등을 들면서 이 중 당신은 높임말이라 하는데 사회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대를 높여 칭할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엄격한 의미로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말 待遇法의 話階(speech level)의 기술에서 그 表現의 形態上 차이만 보고 話階가 다섯이다 여섯이다라고 한다던가, “...(하)오”를 높임말의 범주에 넣는 등의 分析記述보다는 이를 社會的側面에서 관찰 記述할 때 여러가지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Hwang 1975와 황적륜 1976을 참조) 이와 같은 해석과 記述이 우리말 사용자가 지니는 언어능력을 보다 잘 반영하여 보다 높은 記述的妥當性(descriptive adequacy)을 지닌다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다.

우리말의 話階記述에서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X가 Y를 Z하다” 등의 基低文이 表層에서 “아이가 밥을 먹는다”에서 “아버님께서 진지를 잡수신다”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도출되는 과정을 文法이 어떻게 記述해내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Lee, H.B. (1970), Chang (1973), Lee, C.M. (1974) 등에서 여러 次元의 深層에 [±Respect], [±Honorific], [±Humble] 등 素性이나 manner deixes 등을 넣어 기술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미심하게 남는 것은 이런 素性등이 어떤 말에 內在적으로 있는게 아닌 만큼 무엇이 이런 素性 등을 붙이게 만드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對話者間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적어도 우리말의 話階에 관한 한 文法記述이 만족스러운 것이 되려면 사회적 要素의 記述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불완전하나마 그런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황적륜 1976)

3. 4. 妥當性이 있는 言語理論은 妥當性이 있는 文法 즉 言語記述模型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Chomsky 1965) 妥當性 있는 文法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言語表現의 適格性(appropriateness)에 관한 문제이다. 言語表現의 適格性을 따질 때 언어는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大前題를 부인할 수 없는 한 狹意의 文法性(grammaticality)만을 따져 만족할 수 없고 使用脈絡 속에서 適格性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피력되어 왔다. 예를 들어 1) We are going there next week. 2) We are coming there next week. 3) We are coming here next week.는 모두 狹意의 文法性을 지닌 표현이나, 대화자 간의 공간 시간적 위치에 따라 어떤 것은 適格한 것이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 된다⁷(Lyons 1977:579). Fillmore (1972)도 같은 취지에서 이와 유사한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Can you send me a box about yea big?”은 相面한 대화에서는 완전하나 전화 대화에서는 안된다는 등이다.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없는 운전사에게 “이쪽으로 가시오”하는 것도 같은 종류의 예이다. 言表(utterance)의 適格性을 결정하는 使用脈絡에는 社會的인 것이 많은데, “Hi! Long time no see.”는 친구 간에는 좋으나 학생이 교수에게 하는 말로는 부적당하며 ‘조용하라’는 말로서 “Your silence is cordially requested.”는 UN총회 의장이 회의 개회전에 하는 말로서는 아주 좋으나 허물없는 술좌석에서의 친구 간의 대화에서는 “Shut up!”이 適格하다는 등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3. 5. 이상 언급한 사실들은 인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에 대한 정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언어능력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언어학의 대상이 무어라고 보느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Chomsky는 언어능력을 주로 狹意의 文法이란 것과 관련시켜 첫째,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해보지도 못한 수많은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내고 들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둘째 표면 구조가 서로 다른 두 문장이 同義(synonymous)임을 아는 능력, 셋째 표면적으로 하나인 문장이 서로 다른 뜻을 지닐 수 있음을 아는 것 즉 문장의 애매성(ambiguity)을 아는 능력, 넷째로 한 문장을 보았을 때 그것이 문법적인가 비문법적인가를 판가름하는 능력이라 하며 주로 문법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이란 측면에서 언어능력을 정의하고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 언어학의 목적이라 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어를 使用脈絡에서 遊離시킨 自律的體系로만 보았을 때의 얘기이고 하나의 사회행위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보았을 때는 언어능력을 그렇게 한정된 측면에서 정의 할 수 없음은 앞서 언급된 여러가지 사실로 보아도 분명하다. Chomsky가 말하는 언어능력만을 갖춘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겨울에 London에 있으면서 “We are having a fine summer here in Queensland.”라고 한다면 그 밖에 자기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문법적인 문장이면 무엇이던지 내뱉고 다니는 言語의 怪物이 되고 말것이다.

따라서 Hymes는 ‘communicative competence’라는 개념을 내세워 인간의 언어능력을 문법적인 뿐 아니라 對話狀況에 적합한 표현을 쓸 줄 알며 한 言表의 指示的·命題的意味도

⁷ A市에 있는 話者가 B市에 있는 聽者에게 전화로 말했을 경우 1) 2)는 되나 3)은 되지 않으며 같은 市에 있는 話者 간에는 1), 3)은 되나 2)는 안된다.

아는 것인데 知識(knowledge)이란 점으로만 정의할 게 아니라 能力(capability)란 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하여 Chomsky가 言語遂行(performance)에 屬한다고 言語學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많은 부분이 言語能力(competence)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어능력의 개념 속에서는 狹意의 文法性에 관한 판단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다음 네가지 종류의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Hymes 1972 : 281)

1. 어떤 것이(어느 정도로) 형식상으로 가능한지 여부⁸
2. 어떤 것이(어느 정도), 遂行可能한지 여부⁹
3. 어떤 것이(어느 정도로) 그것이 사용되고 평가되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適合한지 여부
4. 어떤 것이(어느 정도로) 실제 이루어지고 遂行되는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지

이렇게 새로이 정의된 언어능력 즉 communicative competence는 주로 ‘지식’이라는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 ‘지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Lyons 1977:570-573)

1. 대화 참여자간의 역할(role) 지위(status) 등 사회적 관계
2. 그들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3. 대화장면의 격식가춤(formality)의 정도
4. 그 장면 또는 상황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medium)
5. 대화의 주제에 적합한 언어표현
6. 대화장면이 속하는 領域(domain or province)¹⁰에 적합한 언어표현

언어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언어 사용자가 갖는 언어능력의 記述이고, 또 적어도 어떤 언어이론이나 문법이 記述의으로 妥當(descriptively adequate)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사용자의 언어능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할진대 이상과 같은 언어능력에 대한 再定義는 곧 언어학의 대상에 대한 재정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언어학은 狹意의 문법규칙의 기술에 머무를 수 없고 Ervin-Tripp(1972)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른바 話의 規則(rules of speaking)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模型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3.6. 언어능력의 정의, 나아가서는 언어학이론의 재평가의 필요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言語變異形(linguistic variables)에 대한 활발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 언어 변이형에 대한 연구는 正統社會言語學(sociolinguistics proper)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接近法(approach)이 있다. 하나는 Labov(1972), Cedergnen, Sankoff(1974) 등에 의해 대표되는 統計的方法(quantitative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Bailey(1972), Bickerton(1973) 등의 波狀理論(wave theory)方法(一名 dynamic paradigm

⁸ Chomsky(1965)의 ‘grammaticality’에 해당.

⁹ Chomsky(1965)의 ‘acceptability’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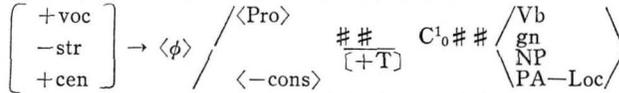
¹⁰ Domain은 Fishman(1972)이 주로 쓰고 Province는 Crystal and Darey(1969)가 사용한 말로서 여러 개의 구체적인 대화상황(speech situation)들이 사회적으로 공통성을 갖고 다같이 X라는 한가지 언어 변이형의 지배적 사용으로 특징지어질 때 이를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묶은 것이다.

approach)이다. 이 두 方法은 共히 一次의 言語資料(primary speech data)가 보이는 變異性의 重要性을 인정하고, 이를 言語遂行上의 문제(performance feature)로 언어학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話者의 언어능력의 범주 속에 넣어 분석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이형에 대한 기본 전제와 分析 및 記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統計的接近法에서는 여러가지 변이형과 이의 선택에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조사 기술하여 이를 $X \rightarrow \langle Y \rangle / \langle A \rangle \text{ — } \langle B \rangle$ 형식의 변이 규칙으로 표시하고 $\langle Y \rangle$ 즉 X가 Y로 되는 확률을 다시 확률 공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langle A \rangle - \langle B \rangle$ 의 맥락은 언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¹¹ 이런 변이규칙이 언어이론에 주는 중요한 계시는 인간의 언어능력 속에 포함되는 언어규칙은 반드시 黑이나 白이나의 범주적(categorical)인 것만은 아니며 확률적인 것도 있다는 사실이며 변형생성문법에서 恣意規則(optional rules)이라 이름 붙인 규칙의 적용 여부는 話者의 恣意만은 아니며 言語의 脈絡과 話者가 屬하는 社會階層·言語使用의(社會的)場面 등과 함수 관계를 이르며 비록 확률적이긴 하나 상당한 규칙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한편 dynamic paradigm approach에서는 변이형이 존재하는 사실, 다시 말해 한 언어 집단 속에 A도 있고 B도 있거나 나아가서는 한 話者가 A도 쓰고 B도 쓰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려 한다. 즉 새로운 언어규칙 B(음운적인 또는 통사적인)가 어떤 焦點領域(focal area)——그것은 地理的인 것일 수도 있고 社會階層的인 것일 수도 있다——에서 시작되어 다른 地域이나 社會階層으로 波狀形으로 퍼져 나가는데 發生起點인 焦點領域에선 새 규칙 B가 舊규칙 A를 완전히 대체하여 B만 있고 다음 領域(地理的 또는 社會的)에선 대체되는 과정에 있어 A, B가 共存하며 또 다음 영역에는 波가 아직 미치지 못해 옛 규칙 A만이

¹¹ 變異形規則의 예를 좀더 자세히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基底(underlying)에서의 無強勢中舌母音(unstressed central vowel)은 다음 조건에 따라 表層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 1) 先行하는 名詞句(noun phrase)가 代名詞로 이루어져 있느냐의 여부
- 2) 先行하는 音形部分(phonological segment)이 子音이나 아니냐
- 3) 連結詞(copula)다음에 오는 것이 동사이나, gonna이나, 叙述形容詞 또는 所格(locative)이나 아니면 名詞句냐, 더 자세히 말한다면 $A \# \# \text{ — } C_1^0 \# \# B$ 라는 환경에서 基底의 無強勢中舌母音이 表層에서 零이 되는 短縮현상(contraction)이 일어날 확률은

$I - (I - P_0) (I - \alpha(A)) (I - \beta(A)) (I - \nu(B))$ 라는 공식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P_0 는 모든 환경에 共通인 入力確率(input probability)이고, α 는 A가 대명사냐 아니냐에 달려 있으며, β 는 A의 最終部分이 $[-\text{cons}]$ 냐 아니냐, ν 는 構成要素 B의 文法上의 性格如何에 달려 있다.

끝으로 통계적 방법으로 最大可能性(maximum likelihood)을 보면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다.

$$\begin{aligned} P_0 &= 0.25 \\ \alpha(\text{Pro}) &= 0.86; \alpha(-\text{Pro}) = 0 \\ \beta(+\text{cons}) &= 0; \beta(-\text{cons}) = 0.65 \\ \nu(-\text{NP}) &= 0.16; \nu(-\text{PA-Loc}) = 0; \nu(-\text{Vb}) = 0.49; \\ \nu(-\text{gn}) &= 0.89 \end{aligned} \quad (\text{Sankoff } 1974:28-30)$$

여기에 예시된 變異形規則은 變異形의 사용을 규제하는 언어적환경(linguistic context)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變異形의 사용이 言語外的인 社會的환경에 의해 규제될 때도 같은 方式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 ($[-\text{cons}] \langle \text{Pro} \rangle$ 등 언어환경 대신에 社會的 要素를 표시하면 된다.)

있는 현상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세 영역을 총체적으로 볼 때 A, B 두 변이형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언어론에 주는 영향은 한 개인의 문법이 곧 그가 속한 언어사회(speech community)의 문법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언어이론은 이 둘중 어느 하나를 수용해야 하는데 전자를 받아들일 경우 인간의 언어능력을 구성하는 언어규칙으로서 범주적 규칙 뿐 아니라 半範疇的 내지는 확률적인 變異規則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발전해야 하며, 후자를 받아들일 경우 한 개인의 문법이 그가 속한 언어사회의 문법과 동일하다는 전제를 버려야 하고 이에 따라 同質的인 言語社會의 理想的인 話者가 갖는 언어능력을 기술하는 게 곧 언어학이라는 대전제를 버려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언어학은 한 언어사회 구성원 개인의 문법을 기술하는 記述言語學的의 局面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lects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比較言語學的의 局面을 모두 갖춘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위 두 model 중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는 아직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언급한 것 외에도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의 언어에 관한 연구는 언어변화(linguistic change) 이론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고 方言學에도 눈부신 공헌을 하여 新方言學(New Lectology)이란 것을 낳는 등 넓은 의미의 언어이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Labov는 미국의 Martha's Vinyard라는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운 변화(母音上昇현상)는 전적으로 그 섬의 젊은 주민들이 외부 관광객들의 영향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주체의식이랄까 자기 자신들의 결속을 다짐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냄으로써 언어변화의 요인은 언어 자체 내의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많은 경우 사회적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보다 타당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方言學의 경우도 사회언어학은 資料수집 方法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래의 언어학이 地理的이고 수평적인 차원의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부딪혔던 문제들이, 사회계급, 기타 공통 관심사, 성별, 나이 등으로 묶여지는 사회집단을 중시하는 수직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연구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예를 들어 地域中心의 方言學에서 부딪혔던 큰 문제는 isoglosses 들이 교차하여 난맥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이를 앞서 간략히 언급한 波狀 모델로 분석하면 서로 다른 焦點領域(이것이 社會的集團인 경우가 많다)에서 시작된 언어변이형들이 파상으로 퍼져 나가다 보면 서로 교차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이 밖에도 ‘사회 속의 언어’ 연구가 넓은 의미의 언어이론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면 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4. 글을 맺는 뜻에서 다시 언어학과 직결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언급된 사실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언어학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현재와 같이 순수언어학과 사회언어학이 구별 지어진 상태에서 순수언어학이 사회적 맥락에서 유리시킨 언어의 구조(structure)를 분석하여 좁은 의미의 문법의 범주에 속하는 규칙들을 규명하고 사회언어학은 이들 규칙이 사회와 접할 때 생기는 문제들 즉 言語表現의 社會的 適格性의 문제라던가 變異形使用의 규칙성의 문제들, 그 밖에 langue와 parole, 또는 competence와 performance의 중간 영역, 다시 말해서 parole과 performance의 문제라 하여 순수언어학의 대상 밖으로 밀려났던 것 중 체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하면 이 둘을

합치는 형식의 것으로 머물러 좋은 것인지?¹² 아니면 Hymes(1973, 1974)나 Halliday(1978)가 주장하거나 示唆 하듯이 처음부터 그 연구의 근본대상을 ‘사회 속의 언어’로 삼고 이론의 개념적 구조도 論理보다는 수사학적인 것에서 찾으며 ‘문법’도 추상적 규칙의 문법이기보다 ‘선택’이라는 면에서의 문법이 되고 문장(sentence)이나 그 밖의 언어표현 단위의 구조도 기능(function)이란 측면에서 기술되고 설명되는 전혀 새로운 典型(paradigm)의 언어학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언어는 원래부터 인간의 사회행위의 산물이며 그 본질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란 점에서 찾아야 하느니만치 Hymes나 Halliday 등이 구상하는 언어학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이런 언어학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model)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상태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Nikolsky(1977)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Contemporary linguistics is represented by a complex of disciplines(intralinguistics, philosophy of language, psycholinguistics, sociolinguistics) which, investigating different aspects of language, are in complementary relationship to one another and only in their totality capable of adequately reflecting all its properties... Moreover, without exhaustive knowledge of all sides and properties of language it would be premature to set out at the present time to formulate a general linguistic theory under the banner of a ‘system’ or any other linguistics. I think that the creation of a unified theory of languages is going through the intermediate stage of the differentiation of linguistics and will lead in the end to the stage of the integration of the special theories which will be inescapably reached when the several linguistic disciplines have fulfilled their tasks(p. 185).

참 고 문 헌

- 황적륜(1976) ‘韓國語待遇法の 社會言語學의 記述-그 形式化(Formularization)의 可能性,’ 言語와 言語學 제 4 집, 한국의국어대학, 서울.
- Bailey, Charles-James N. (1972) ‘The Patterning of Language Variation,’ in R.W. Bailey and J. L. Robinson eds., *Varieties of Present-day American English*, Macmillan.
- Bickerton, Derek (1973) ‘Quantitative versus Dynamic Paradigms: The Case of Montreal *Que*,’ in C. N. Bailey and R. W. Shuy eds., *New Ways of Analyzing Variation in English*, Georgetown Univ. Press.
- Chang, Suk-Jin (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Pragmatic Aspect of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msky, Noam (1965)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¹² 이것이 현재 대부분의 순수언어학자와 Labov 등 일부 사회언어학자들의 입장이다.

- Crystal, D. and Derek Davy (1969) *Investigating English Styl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Ind.
- Ervin-Tripp, Susan M. (1972) 'On Sociolinguistic Rules: Alternation and Co-occurrence,' in D. Hymes and J.J. Gumperz,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 York.
- Fillmore, Charles (1973) 'A Grammarian Looks to Sociolinguistics,' in Roger W. Shuy ed., *Sociolinguistics: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Fishman, Joshua A. (1972) *The Sociology of Language*, Newberry House, Rowley, Mass.
- Grice, H.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Academic Press, New York.
- Halliday, M. A. K.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Edward Arnold.
- Hudson, R. A. (1980) *Socio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Juck-Ryoon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ymes, Dell (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Harper and Row, New York.
-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and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Penguin, London.
- (1973) 'The Scope of Sociolinguistics,' in Roger W. Shuy ed., *Sociolinguistics: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Pa.
- Labov, W. (1972) 'The Study of Language in its Social Context,' in J. B. Pride and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Penguin, London.
- Lakoff, Robin (1976) 'Language in Society,' in R. Wardhaugh and D. Brown eds., *A Survey of Applied Linguistic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e, Chung-Min (1974) *Abstract Syntax of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Lee, Hong-Ba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Ph.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 Lyons, John (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inowski, B. (1937) 'The Dilemma of Contemporary Linguistics,' in Hymes (1964).
- Nikolsky, Paul (1977) 'The Subject Matter of Sociolinguistics,' in P. A. Luelsdorff ed., *Soviet Contributions to Sociolinguistics*, Mouton.
- Pride, J. (1971) *The Social Meaning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Sankoff, G. (1972) 'A Quantitative Paradigm for the Stud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R. Bauman and J. Sherzer eds.,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Spe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 Sapir, Edward (194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in D. G. Mandelbaum ed.,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Weinreich, U. (1953) *Language in Context*, Mouton.

ABSTRACT

Language in Society —Toward a New Direction in Linguistics

Juck-Ryoon Hwang

The basic premise underlying this paper is that in linguistics, as in other sciences, the method should be developed out of the subject matter, and not vice versa. I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re-evaluate the subject matter of linguistics, which in recent years has given priority to methodological decision and excluded much that is involved in language behavior from its model of the language system.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claim that the real subject matter of linguistics should be the language in socio-cultural contexts, several examples are given concerning semantics, syntax, discourse analysis, etc. Attention is called to the fact that the no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akes it legitimate to extend Chomskyan notion of 'competence' and eventually the scope of linguistics.

Three possibilities for a new direction in linguistics are listed, leaving the matter of ultimate choice as an open question.

15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대 영어교육과
(접수 : 1980. 10. 31)